

**2021. 7. 28.(수) 11:00 -  
제71회 노근리사건 희생자 추모식 영상추도사(노근리평화공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청도민과 영동군민 여러분,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노근리 사건 이후, 일흔한 번째 맞는 7월입니다.  
1950년 6·25전쟁 발발 한 달 후, 노근리 쌍굴다리 인근에서  
수많은, 무고한 양민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성들뿐만 아니라  
팔순의 노인과 젓먹이까지 참혹하게 희생되었습니다.  
공식 확인된 바로만, 5일 동안 무려 백오십 분이 생명을 잃으시고,  
행방불명이 열세 분, 부상으로 장애를 입으신 분이 예순세 분입니다.  
유족은 2천 명이 넘습니다.

노근리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영령들을 추모하며,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날의 상처를 안고 슬픔과 고통의 긴 세월을 살아오신,  
스물세 분의 생존희생자 여러분과,  
가족을 잃은 통한의 시간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근리사건은 6·25전쟁이 만든  
대한민국 현대사의 씻을 수 없는 아픔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진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죽음을 찾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응당 국가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전쟁 중 우리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희생된 국민을 오랫동안 밝혀내지 못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 사건이 알려져서 빛을 보게 된 것은  
생존자 여러분과 유가족들께서, 집념을 가지고  
사건의 진실규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노력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비단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그날의 비극을 평화와 인권, 화해의 가치로 승화시켜서  
'노근리 정신'을 지키고 실천해 오셨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70주년을 맞아 추모식과  
'노근리 글로벌 평화포럼' 등 뜻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근리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여러분의 끈기 있는 열정을 통해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노근리사건을 밝히고 그 의미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 오신  
모든 분들께,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여러분과 유가족 여러분,  
노근리사건의 실체가 알려지고,  
위령탑과 평화공원이 세워졌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추도식도 열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오랜 아픔을 치유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근리 사건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노근리의 역사와 정신을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후세에 전하도록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영동군민 여러분,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화해와 용서의 손을 먼저 내밀어주셨습니다.  
억울함과 고통을, 평화와 인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근리사건은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잠시 발걸음이 멈춰 서 있지만,  
최근 몇 년간 해마다 10만 명 이상이  
노근리평화공원과 쌍굴다리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노근리 글로벌 평화포럼에는 25개국 300여 명이  
참여해서 노근리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노근리 정신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  
억울한 죽음과 희생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노근리사건을 인류사에 밝히신  
희생자 유족회의 故 정은용 초대 회장님,  
뒤를 이어, 해마다 추모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양해찬 회장님,  
노근리 국제평화재단의 정구도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밝히신 진실의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고  
이 땅에서 전쟁의 참화와 그것을 이겨낸 역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노근리 사건 희생자 영령들을  
마음 깊이 추모 드립니다.

감사합니다.